



### 올바른 인성교육으로 선진국 국민을 육성하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인성교육이란 인간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는데, 반복된 좋은 행동은 습관으로, 좋은 습관은 인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인성교육은 우리 인류 문화가 시작되면서 필요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바르고 정의로써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필수적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육의 문제가, 특히 인성교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직장에 매이고 아이들은 사교육으로 내몰리니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할 시간이 적고 소통이 부족하니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을 연구 또는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인간의 심성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다. 인간은 항상 변동하는 과정에 있고 개개인의 개성이 모두 다르다. 인성교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한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무엇보다 인성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부모를 통해 시작된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는 부모를 통해 보고, 듣고, 배운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은 부모와의 간단한 일상 대화부터 시작된다.

옛말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말 못 하는 어릴 적부터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 품 안에서 전해지는 감성이 선심(善心)과 사랑의 마음을 키운다.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라거나 '잇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등의 말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가정과 사회가 바로 서고 부모와 어른들이 숭선수범을 보이면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은 이를 보고 스스로 배우며 좋은 인성이 길러진다.

요즘 신문 방송의 보도를 보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패륜적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아동 학대나 폭력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감정과 분노의 표출이다. 지금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체벌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고, 체벌해서도 안 된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의 교육은 너그러운공과 엄격함을 알맞게 조화를 이루어 지도가 이루어져야 좋은 인성이 길러진다.

부모가 위엄이 있으면서도 따뜻한 사랑을 갖추고 있으면 아이들은 부모를 스스로 어려워하고 삼갈 줄 알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사랑하는 효심도 생긴다. 일부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응석만 부리게 두고, 식사 예절을 비롯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생활에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 둔다. 따듯하게 훈계해야 하고 부추기거나 엄하게 꾸짖어야 하는데 오히려 애교라고 웃어넘긴다.

결국 완전히 교만하게 되고서야 새삼스레 자식을 억누르려 화가 나면 때리면서 부모의 위엄도 찾지 못하고 아이의 분노와 원망만 쌓이게 한다. 공자는 "어려서 길러진 것은 천성처럼 습관으로 굳어진다. 머느리 교육은 가마가 들어올 때부터, 자식 교육은 젖먹이 때부터"라는 옳은 말을 했다.

서너 살이 되어 어른의 낯빛을 알아보고 기쁘고 노여워하는 감정의 변화를 가릴 때 곧 가정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을 실행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그만두게 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집단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 등 정치, 경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부도덕성이 매일 보도되고 있다.

이제 나라가 인성교육에 더욱 투자해야 하고 중요시할 때이다.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 동시에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하는 가정에서 부모와 학교에서의 교사는 긍정적인 칭찬의 말이 행동으로 시행되며 행동이 바른 인성을 갖게 되며, 바른 인성이 좋은 습관이 되며, 좋은 습관이 인격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교육자는 긍정적인 칭찬의 말이 많아야 하며 남을 돕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습관이 길러지게 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계기(契機) 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으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애국심을 길러야 한다.

칼럼

### 다가오는 추석명절 안전운전의 기본 안전거리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을

한상현 장흥경찰서 112지안종합상황실



명절때만 다가오면 어김없이 뉴스에 보도되는 교통사고 방송중에서 제일 많은 사고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이지만 그중에서도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이다.

교통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안전거리 미확보나 과속·졸음운전, 난폭운전 무리한 차선변경, 도로 등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이 그리 바쁘지 않자와 너무 가깝게 붙어서 가는 것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사고로 연결된다.

또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터널 등으로 진입하게 되면 갑자기 어두워지게 되고 시야가 좁아져 속도감까지 떨어지면서 대처능력이 떨어지게 된다.자간 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는 앞 차량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거리가 짧아 앞차와 부딪치게 되고, 뒤차 역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추돌하면서 연쇄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즐거워야 할 추석명절이 한 순간에 무너진다.

모든 운전의 기본인 안전거리확보 운전이 최고의 안전운전일 것이다.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박준영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던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기억하시나요? 다수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를 꼽자면 비상구 폐쇄를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함에도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들을 적치하여 위급 시 사람들이 비상구로 탈출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소방서에선 소방시설의 폐쇄와 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잠금, 위험한 소방시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인력으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백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탈출로이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이용해보면 어떨까?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영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honam@naver.com

기고

### 법치 경비 실현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 필요

박수준 고흥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우리 경찰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법치경비의 정착이다.

법치경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보호와 비례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 서로간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회 주최자의 요구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집회 시위라 하면 쇠파이프나 화염병이 난무하는 폭력시위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우리 국민의 의식도 달라져 평화시위를 스스로 정착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단체 등에서는 미신고 집회나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반한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며, 또한 집회 주최자 등이 폭력시위를 조장하면서 최초 집회 신고에서 변질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



며, 같은 단체 내에서도 지역적 이익을 위해 집회 현장에서 서로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또한,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공사현장에서 화성기 등을 틀어놓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에 따른 민원야기로 공사업체에 압력을 가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폭력 시위는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집회 주최자들도 평화시위를 정착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집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